

강희업 위원장, “김포골드라인 혼잡관리에 만전 주문”

- 29일 김포골드라인 출근길 현장방문 및 혼잡상황 점검 -

-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8월 29일(화) 수도권 전철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탑승하여 출근길 운행 상황을 점검하였으며, 김포시, 철도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에게 혼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였다.

- 강 위원장은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탑승하고, 김포공항역까지 이동 중 몇몇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“올해 4월 첫 현장방문 때와 비교하면 혼잡도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불편함을 느꼈다”고 밝혔다.
 - 현장점검을 마치고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“지난 4월부터 수도권 전철 혼잡해소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개통,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,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을 마련·시행해온 결과 최대 혼잡도가 182%(8.1~8.25, 휴일제외)로 다소 개선되었고, 시내버스 70번 노선도 일 1,900명대로 시민들 호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”라면서,
 - “다만, 9월부터 대학교 개학 등의 여파로 다시 혼잡도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, 이달 21일 풍무~김포공항역에 새로 투입*한 직행버스를 비롯하여 내년 상반기 6편성 증차 등 근본적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”을 주문하였다.

- * 70E노선(서울02): 풍무홈플러스→서해차이파트→풍무푸르지오·센트럴푸르지오→김포공항역(12회, 8.21일)
70F노선(풍무동DRT): 현대프라임아파트→신동아아파트→당곡고개→풍무한화꿈에그린→김포공항역(6대, 8.21일)

- 강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, “특히, 국민들이 앞으로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자분들께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”고 강조하였다.

2023. 8. 29.

국토교통부 대변인